윤 대통령, 국회의원·수석 대거 동행 5·18 통합 행보

오늘 42주년 기념식 참석

대통령실 "새 정치의 큰 획"
KTX 타고 '당정 스킨십'
5·18 정신 헌법 수록 약속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5·18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고,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할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대부분이 일제히 참석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여권 총출동인 셈이다. 여기에 보수 정부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며,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제창하게 된다.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에 거리를 두고, 일부 의원들의 왜곡·폄훼로 논란을 일으켰던 보수정당과 보수 정권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5·18 정신 계승 의지를 보임으로써 보수 정부 호남 홀대론을 불식하고, '국민 통합'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기에 6· 1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중도층 지지율 견인 효과도 노린 이중 포석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큰 획이 내일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 과감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메시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기념식에는 이례적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100여 명, 윤석열 정부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대부분이 일제히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가급적 정부·여당이 대거 동참하면 좋겠다고 독려했고, 정무수석실이 이 같은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대통령 전용칸이 있는 KTX 특별 열차도 마련했다. 통상의 경우처럼 전용 헬기를 탑승하는 대신 고속철도를 이용하며 당정과의 '스킨십'을 꾀했다. 윤 대통령은 기차 안에서 의원들과 둘러 앉아 도시락 식사를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연설을 통해 헌법 전문에 3·1 운동과 4·19 정신뿐 아니라 5·18 정신 계승도 추가하는 방안을 거론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강령에는 이미 5·18 정신 계승이 포함돼 있으며,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줄 곧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므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헌법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기념식 말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과거 보수 정부 때마다 기념식 식순에서 제외하거나 제창이 아닌 합창 형태로 연주하던 노래를 흔쾌히 함께 부르기로 하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5·18'이 더 이상 진보와 보수 간 대결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취임 직후 여소야대 상황에 부딪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번 5·18 기념식을 통해 국민 대통합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통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정치 자체가 통합의 과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정부와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세 차례나 꺼내기도 했다.

인수위 단계에서 가동했던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관련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5·18 단체들이 요구한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호남도 동서 화합을 위한 노력에 공감하고 마음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민주 5·18 헌법전문 수록 논의 헌정특위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7일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이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씀이 선거 때 표심잡기용이나 할리우드 액션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의 약자인 헌정특위를 만드는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행히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4·19, 5·18, 6·10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광주행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면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가기념식 참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기 국회에서 헌정특위 구성에 조건없이 동의해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광주행과 맞물려 여권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이슈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가 국회 특위 구성 등 '실천 의지'를 한 발 먼저 부각해 원내에서의 이슈 선점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부 장관 임명…정호영은 보류

한동훈 "사회적 강자도 엄정 수사"
김현숙 "여가부 국민 눈높이 맞게 전환"

한동훈

김현숙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일단 보류했다.

이로써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부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가 진행되던 도중 인사를 발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17일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은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검찰 후배이자 최측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조국 수사'를 계기로 집권 세력과 불화한 뒤 좌천됐다가 정권 교체 후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됐다.

김현숙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여가부는 시대의 소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처로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대선 경선 때부터 윤 대통령의 정책·공약 수립을 도왔고, 인수위 때는 특보로 역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호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낙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지적된다.

특히 여소야대 지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정 후보자 거취가 그와 연동된 측면도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임 행진곡' 당연히 제창…5·18 헌법 전문 수록 긍정적"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7일 "5·18 기념식에 참석하면 저희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연히 제창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광주 라디오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저희는 다 제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번 행사에 전원 참석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갈 수 있으면 앞으로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달라진 모습을 확실히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 때문에 제가 '당연히 좋은 제안이다' (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선 "당연히 개헌이 진행되게 되면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민주화 운동으로서 당연히 저희가 헌법 전문의 가치가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